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의미

문채원

pp. 187-189 · DOI 10.99999/s.2020.15.2.187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12명을 심층 면담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으로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주제가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끊임없는 비교, 줄어드는 시간, 기대의 무게, 쉬어도 쉬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를 점수로만 보지 않고 학생의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업 스트레스, 현상학, 면담, 중학생

I. 서론

학업 스트레스를 점수로 재는 연구는 많지만, 학생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면담으로 경험의 의미를 묻는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의도적 표집으로 중학교 3학년 12명(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을 모집하였고 2019년 6~7월에 1인당 한 차례, 40~60분씩 면담하였다. 12명 모두의 면담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 수집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지침에는 학업과 관련하여 힘들었던 순간, 그때의 생각, 주변의 반응을 묻는 질문이 들어 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고 글로 옮겼다.

3. 분석 방법

글로 옮긴 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뽑아 묶는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분석 결과 네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를 이야기한 참여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 주제별 언급 참여자 수 (12명 중)

주제	참여자 수
끊임없는 비교	10
줄어드는 시간	9
기대의 무게	8
쉬어도 쉬지 못함	7

IV. 논의

질적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 12명의 경험이며 다른 학생에게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